‘백천대해’는 버리고 거품만 본다

〈百千大海〉



지안 스님의 〈능엄경〉 강해

⑦ 진여와 아뢰야식

〈원문〉 “회매(晦昧)하여 공(空)이 되고 공과 회매한 어둠이 맺혀서 색(色)이 되며, 색과 망상이 뒤섞여 색이 형상화된 것을 몸이라 하고 보고 듣는 관계인 연(緣)을 쌓아서 안으로 흔들리며, 밖으로 치닫는 어둠에 요동하는 것을 심성(心性)이라 하느니라. 한 번 미혹하여 마음이라 하고는 색신 안에 있다 하고 색신과 바깥의 산하 허공 대지가 모두 묘명한 진심 가운데의 물건인 줄 알지 못하느니라. 비유컨대 맑은 백천대해(百千大海)는 버리고, 오직 떠 있는 한 거품을 보고 큰 바다 전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것과 같으니라.”

〈강해〉 이 대목은 〈능엄경〉 가운데서도 매우 심오한 구절이다. 중생이 깨달음을 등지고 진로(塵勞) 합해진 배각합진(背覺合塵)의 이유를 밝힌 대목으로 매우 난해한 구절이기도 하다. 중생이 미혹한 점이 어떤 것이냐 하면, 참 마음인 진아(眞我)는 모르고 몸을 ‘나’ 라고 하고 망심(妄心)을 ‘나’ 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깨달음(悟) 가운데 미혹(迷)을 잘못 아는 것이라 하고, 이것 때문에 중생이 뒤바뀌졌다(顚倒) 하였다. 다시 말해 미혹해진 마음을 ‘마음’ 이라 한다는 것이다.

회매(晦昧)란 말은 캄캄한 어둠이란 말로 깨달음을 등진 시초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무명(無明)이다. 기신론에서 말하는 여실히 진여법이 하나(一)임을 알지 못하는 불각(不覺)의 상태다. 이 무명을 바람에 비유하여 ‘홀연히’ 생긴 것이라 한다. 진여가 무명의 바람에 의하여 흔들리기 시작한 최초의 찰나가 잠재적 업(業)이 시작되는 순간이며 이것이 아뢰야식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진여는 불생불멸하는 것인데 아뢰야식은 생멸이 시작된 찰나라 동요가 일어난 것이다. 바람이 불어 파도가 생긴 상태라는 것이다. 이때의 진여와 아뢰야식이 물과 파도의 관계라 고요하던 것이 움직이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똑같은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를 ‘하나가 아니다(非一)’ 라 하고 물이 움직여 파도가 되었으므로 물과 파도가 다르지도 않다 하여 ‘비이(非異)’ 라고 한다. 그래서 아뢰야식을 설명하면서 쓴 말이 비일비이(非一非異)로 표현되었다.

미혹(迷惑)된 것이 무명 때문인데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 미(迷)이다. 캄캄한 어두운 밤에는 어둡기 때문에 동서남북의 방향을 알 수 없다. 이것이 미혹이고 또한 무명이다. 십이인연설에서도 말하는 바와 같이 중생의 세계는 무명에서 시작된다. ‘회매하여 공이 되었다’ 는 공(空)은 허공과 같은 개념이지만 다분히 형이상학적인 말로 물리적 공간을 뛰어넘는, 굳이 말하자면 어둠의 정신적 공간, 내지 미혹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어둠이 맺혀 어떤 결정체가 만들어져 물질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地) · 수(水) · 화(火) · 풍(風)의 사대(四大)가 나왔다는 것이다. 이 색이 망상과 뒤섞여 망상으로 모양을 갖춘 것을 ‘몸’ 이라 하는데 육신은 고정된 모습이고 몸이 감관을 통해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망상인데 이른바 육체와 정신을 합하여 그것이 몸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안으로 요동하고 밖으로 치닫는다’ 는 것은 망상인 마음이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여 밖으로 나와 눈으로는 보고 귀로는 듣고 하여 외부 경계를 쫓아다닌다는 말이다. 육근(六根) 육진(六塵)을 상대하는 것이 밖으로 경계를 쫓아가는 것이다. 이른바 주객이 분리되어 심식(心識)이 끊임없이 분별을 일삼는 것을 말한다. 그리하여 식심이 일어나는 그것이 마음의 전부인양 생각하여 마음이 사대인 몸과 망상인 정신에만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허공이나 대지 등은 마음 밖에 있는 객관의 경계라고 여기고 그것이 마음 안에 있는 것인 줄 모른다고 하였다. 마음 밖에 법이 없는데 마음 밖에 객관의 경계가 따로 존재한다고 여긴다는 것이다. 그것을 비유하여 바다 전체를 모르고 바닷물 위에 생긴 거품 하나를 보고, 바다 전체라 여긴다고 했다.

비유로 든 말 중 ‘백천대해를 버리고 한 거품만을 잘못 알아 바다 전체라고 안다’ 는 것은 백천대해가 중생의 참 마음인데 그걸 모르고 망상을 일으키는 그것이 마음이라고만 생각한다는 말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제도 대상 많을수록 ‘불공여래장’ 증장



구선스님의 〈묘법연화경〉 강의

⑦ 자비관

8식의 틀 안에 7식이나 6식을 갖춘 채로 존재하면서 심식의의 정보를 자기로 알게 된다. 이 중생은 스스로의 진여심이 분리돼서 진여문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다만 원인 모를 외로움에 빠져서 대상 없는 그리움에 젖어 있을 뿐이다. 이때의 그리움이 환희지에 들어있는 보살을 깨운다. 보살이 해탈지견으로 자기 중생을 인식하면 진여심과 생멸심을 평등하게 바라본다. 이때가 ‘이구지’ 에 들어간 상태이다. 이구지에 들어가면 열세 번째 자비관이 성취된 것이다.

이때부터 보살은 자기 중생을 제도하기 시작한다. 먼저 밝은성품을 생성해서 중생을 감싼다. 그런 다음 중생의 생각을 무념처로 일치시킨다. 밝은성품으로 중생을 감싸는 것이 ‘발광지’ 이다. 중생의 생각을 무념처로 일치시키는 것은 ‘염혜지’ 이다. 발광지에 들어가면 열네 번째 자비관이 성취된 것이다. 염혜지에 들어가면 열다섯 번째 자비관이 성취된 것이다. 중생의 감정을 무심으로 일치시킨다. 그렇게 되면 무념처과 무심처에 중생의 심식이 자리하게 된다. 보살의 진여심에 중생의 심식이 자리하게 되면 심과 식이 서로 교류한다. 그러면서 번뇌가 일어난다. 이때의 번뇌는 보살의 진여심을 흔들어 놓는다. 이 상태를 난승지라 한다. 보살이 이 경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다시 해탈도의 과정으로 내려올 수 있다. 난승지에 들어가면 각성을 본성의 간극에 집중한다. 그런 다음 간극의 적멸상으로 중생으로부터 일치된 심과 식을 비춰준다. 반야해탈도에서는 심식의를 분리시키면 되었지만 난승지에서는 심식의를 껴안고 있어야 한다. 때문에 이 과정을 넘어서기가 대단히 어렵다.

보살도 과정에서는 환희지 이후에 맞이하는 최대의 난관이다. 보살이 이 과정을 극복하지 못하면 보현보살이 출현해서 보살을 이끌어 준다. 난승지에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보현보살에 대한 그리움을 일으키면 보살의 화신이 강림하게 된다. 지극하게 중생심을 껴안은 상태에서 간극에 머무르다 보면 점차로 중생심이 제도된다. 간극에 머물러서 중생심을 비춰주는 것이 법신청정행이다. 간극의 적멸상으로 제도된 중생심은 불공여래장을 이루는 조건이 된다.

법신청정행에 매진하다 보면 점차로 번뇌가 줄어든다. 그러면서 무념처와 무심처가 본래면목을 드러낸다. 그렇게 되면 간극으로 무념 무심을 비추면서 보신행과 화신행을 함께 병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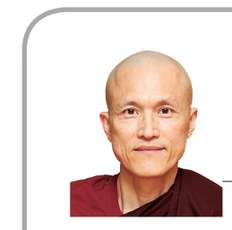
간극과 무심을 활용해서 화신행을 행하고 간극과 무념처를 활용해서 보신행을 행한다.

삼신행이 구족되면서 점차로 암마라식이 돈독해진다. 암마라식이란 진여식과 제도된 생멸식으로 이루어진 보살의 의식이다. 해탈지견과 불공여래장이 합쳐진 9식의 체계이다. 암마라식이 갖춰지면 열여섯 번째 자비관이 행해진 것이다.

보살이 암마라식을 갖추는 과정에서 중생은 견성오도의 상태가 된다. 이런 상태가 되면 중생을 해탈도로 이끌어 간다. 금강해탈로 무소구행에 들게 하고 간극에 머물러서 본각을 증득하게 한다. 중생이 본각을 증득하면 이때부터는 중생 스스로가 제도행을 하게 된다. 이 과정을 현전지라 한다. 열일곱 번째 자비관이 행해진 것이다.

스스로에게서 분리된 생멸심을 제도해서 반야해탈에 들게 되면 이때부터는 자기 생멸심의 원인이 되었던 또 다른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 생멸문을 여행한다. 그러면서 반연 중생들을 제도하기 시작한다. 이 과정을 원행지라고 한다. 제도의 대상이 많아질수록 불공여래장이 증장되고 그럴수록 암마라식이 돈독해진다. 열여덟 번째 자비관이 행해진 것이다.

〈영양 연화사 주지〉



지흐스님의 〈능가경〉 강설

⑦ 존재성

모양으로 존재하는 것 ‘나’ 아냐

자신의 존재성을 증명한다고 하면 두 가지의 반응이 생길 수 있다. 하나는 “자신을 증명하다니 무슨 말이야. 내가 이렇게 버젓이 여기 있는데”라며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을 증명한다고? 무슨 수로 너를 증명한다고 말하는 거니? 그것은 멍청한 짓이야”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있는가? 아마 대부분은 전자에 속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평범하게 살아갈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후자와 같이 멍청한 짓을 많이 하여야 한다. 멍청한 짓을 하지 않으면 모두에게 있는 가장 귀중하게 여겨야 하는 불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프랑스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도 자신의 존재성을 증명하기 위해 수많은 고민을 거듭하다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결론을 내었다. 이것은 평범한 말 같지만 평범한 말은 아니다. 우리는 보통 존재성을 규명하는 데 있어 감각 기관인 오감이 인지적인 면에서는 분명 도움이 되지만, ‘나’ 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다면 그것은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방해를 받은 것이 된다. 여기에서 오감이 왜 방해가 되었는지 궁금할 것이다. 존재성을 규명하는 데 있어 주체가 무엇인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문장이 되고 의미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나’ 라는 단어는 전체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서이지만, 보통은 중요한 단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왜 중요한 단서인 이 단어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걸까? 그것은 우리가 ‘나’ 라는 단어를 너무 평범하게 사용하고, 너무 맹목적으로 맹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 라는 단어를 맹신하는 것은 대상을 직접 가리키는 대명사라서 사실이라는 인식이 작용하고 있어서일 것이다. 다른 품사들도 비슷하겠지만, 특히 명사로 사용하는 개, 고양이, 소, 말, 원숭이, 호랑이 등의 이름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이름이 정말로 사실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나’ 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특히 더 그렇다. 주체에 대한 온전한 관점이 생겨나지 않는 한, 우리는 사실이 무엇인지에 대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그러니 ‘나’ 라는 이름에 대한 의문을 풀지 않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는 문장은 외도들이 말하는 상불사의(常不思議)한 자각성취(自覺聖趣) 경계와 제일의(第一義)의 경계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 라는 이름에 대한 의문이 풀려버리면 ‘나는 생각한다.’ 라는 허상의 문장으로 말미암아 뒤따르는 문장 ‘고로 존재한다.’ 는 진리의 의미로 증명되는 문장이 되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상불사의(常不思議)한 자각성취(自覺聖趣) 경계와 제일의(第一義)의 경계를 말하게 되는 것이다. 아마 대부분은 여기에서 고개를 갸웃거릴 수 있다.

“자상(自相)의 인(因)이 자성(自性)을 아는 것은, 조건 없는 것과 같고 토끼의 뿔과도 같아 본래 그런 것이 없네.”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무심코 하는 말 중에 ‘맛있다, 맛없다’ 라는 말을 많이 쓴다. 그런데 잠시 생각해보면 음식을 먹었다면 ‘맛있다’ 는 말과 ‘맛없다’ 는 말은 생길 수 없는 말이다. 음식은 취향의 문제이지 맛의 문제는 아니다. 생각이라는 것도 이와 같다. 우리의 뇌는 멈추어 있지를 못한다. 뇌는 쉬지 않고 일을 계속하고 있지만, 집중이 일으키는 감지에 따라 생각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다. 그러니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동시에 다른 두 가지의 존재성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하나는 경험을 가진 느낌인 ‘나[我]’ 이고, 하나는 어디에도 치우칠 수 없는, 그러한 두 가지의 맛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나[無]’ 이다. 경험적인 나라는 것은 관념적인 ‘나[我]’ 가 되지만, 치우침 없는 나라는 것은 관념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나[無]’ 가 된다. 그러므로 자신의 존재성이라는 것은 오감으로 감지하여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장엄하고 은은한 염불소리가

법당과 사찰을 감돌고 휘돌아 불자들의 심금을 울려야 할 깊고 심오한 염불소리! 가 지방 업자들의 단순 시공으로 이장 마이크시설 수준이 되어 염불 스트레스와 성대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스님들에게 ..... 서울 토박이 낙원동 출신 베테랑 음향 전문가에게 맡기시면... 단 한번의 최고 시설로 나머 염불인생이 편하기 그지 없어 보물이 따로 없습니다.

20년간 설악 신흥사부터 남해의 토굴까지 1천여 사찰 시설했지만 고장없음, 만일 고장이 난다면 입소문 때문에 장사를 고만 두어야 함, 시설비 190만원 ~ 수 천만원까지

전국을 다니며 시설함으로 귀 사찰을 부근을 지날때 견본으로 일단 소리만 비교
(귀 법당소리와 비교시 장난감 수준 차이! 소리비교비용은 커피한잔!)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무선마이크 4개, 본품들은 시중에 없음 (특징 : 중국제 아닌 국산)

원톱 시스템 다목적 방생용
한번에 최고의 성능을 구입하시면 절약
속에 후회가 없다는 뜻!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무선 2 /
유선 2 /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색소폰
무선전용마이크)
실내 40평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정가(스탠드 포함) 89만원

시중에 없음
염불시 마이크와 2m
멀리서도 소리 월등
스탠드 분리형

시중에 없음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가격 65만원
▣ 한국사찰 각종 “재” 전문

방송장비
KBS 및 각 방송사 방송기재 납품업체
마이크 공장직영, Multi-Cube
각종 방송시설
MASS
Concert
MICROPHONES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TEL : (055) 343-1191
H·P : 010-9471-2026
010-7740-2026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공희